

근대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을 통해 본 여성 복식의 변천*

이경규**
lk5120@deu.ac.kr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다이쇼시대 |
| 2.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에 따른 서구화 | 3.3 전시 여성복식 |
| 3. 여성 복식의 변천 | 4. 나오며 |
| 3.1 메이지시대 | |

主 題 語: 도시문화(city culture), 도시화(urbanization), 서양화(westernization), 모던걸(modern girl), 서양 복식(western style)

1. 들어가며

일본의 서구 도시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메이지 시대부터 비롯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서양화 혹은 문명화에 관심을 기울인 일차적 원인은 외국에 대한 걸치레 때문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개조의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따라서 도시 변화가의 경관을 서양풍으로 정비하는 한편 이에 따른 도시민들의 풍속 역시 근대화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서양문물을 접한 엘리트들은 두발과 복식을 포함한 의식주의 모든 생활양식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서양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초기 일본의 근대도시는 실질적인 의미의 근대화라기보다는 서양의 근대도시에 대한 피상적인 흉내내기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복식 역시 서양의복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IA5A2A03044310)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흥내내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모더니즘의 진행이 두드러지면서 서양문화는 미국문화를 기조로 하여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융성이 절정에 이르는 도시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도시문화는 소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함께 이끌어냈다. 그 양상은 의식주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서적, 가요 등의 대중오락, 휴일문화, 쇼핑, 자녀교육, 습관, 성의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공간은 새로운 소비문화공간으로서 나타났으며 소비문화의 보급과 유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신여성들이었다.

다이쇼기 여성이 문화의 상징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사회의 비난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신여성, 새로운 여자, 모던 걸 등의 이름으로 근대 도시문화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현상적으로는 양장과 기모노 차림이 서로 비등하였지만 양산과 하이힐로 멋을 낸 도쿄의 여성들이 도시문화를 주도하고 향유한 주인공이었다 할 수 있다. 당시에 발간된 여성잡지에서 나타난 근대여성은 전통과 모던, 자유와 미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반영하는 함께 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당시 잡지 속의 여성 문학가들에 의해 자주 표현되었다.

일본의 도시문화 수용과 근대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함동주(2010)¹⁾는 다이쇼기 도시화에 따른 일본 여성의 근대적 생활경험의 변화가 여성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도시의 주부들이 새로운 도시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잡지 『主婦之友』를 통해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과 기준을 고찰하고 있다. 신하경(2009)²⁾은 일본의 도시 모더니즘기에서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모던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해 대중론과 미디어론에 담론의 공간을 마련하여 모던걸을 조명하였으며, 이들을 ‘현실의 모던걸’과 ‘이상적인 모던걸’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념에 근거해 모던걸을 해석하고 있다.

근대 일본 복식에 관한 연구로 이진민³⁾은 전시 체제 하에서 등장한 국민복과 표준복, 몸빼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복식관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시각 변화에 대해 고찰하여 패션 침체기에 나타난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시각을 고찰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복식으로 표출되는 여성의 외양보다는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여성들에게 처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나타나는 내면의 표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일본은 19세기 말 서양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전통의 고수와 서양문화의 수용 사이의 갈등 속에서 근대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20-30년대 들어서는 모던걸과 모던보이라는 근대 주체

1) 함동주(2010)「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경험과 이상적인 여성상」『이화사학연구』제41집

2) 신하경(2009)『모던걸-일본제국과 여성의 국민화』논형

3) 이진민(2004)「전시체제 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연구」『복식』Vol.54 No.2, pp.121-133

력이 등장, 근대도시 중심의 소비와 유행이 서구취향으로 발전하였다. 백화점과 카페를 비롯한 근대도시의 소비 공간의 활성화와 같은 서구의 도시문화 수용과 더불어 서양복이 일상복으로 등장하는 시기였으며, 여성들의 삶과 그에 따른 복식의 변화가 다양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기 이후 근대도시의 문화 수용으로 나타난 서양화된 여성 복식이 일본복식으로 정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근대 도시문화 수용에 따른 서구화

일본의 서구 도시문화 수용에 있어 메이지기 상징적으로 등장한 것은 로쿠메이칸(鹿鳴館)이다. 로쿠메이칸은 메이지 16년 일본 정부에 의해 건설된 사교기관으로 국빈, 외교관, 대신, 상층 계급의 부인 등의 사교장이었다. 1883년 18만 엔이라는 거액을 들여 만든 로쿠메이칸에서는 매일 밤 무도회, 가창회 등이 화려하게 열리고 서구화에 들뜬 사람들이 춤에 열광하였다.

1885년 ‘도쿄요코하마 매일신문’에 「귀부인 무도는 계속 성황인데 지금 학습원 및 여자사범 학교 등의 학교에서는 학과 중에 무도 한 과목을 더하는 것에 관해 협의 중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부 아래 하나의 무도연습소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당시 사회는 서양화에 들떠 있었다.

또한 다이쇼기 도쿄의 아사쿠사(淺草), 긴자(銀座), 오사카의 신사이바시(心齋橋), 도톤보리(道頓堀), 교토의 신교고쿠(新京極)같은 변화가에서는 “번화가 돌아다니기(銀ブラ)⁴⁾”가 유행했고, 영화관을 중심으로 소형공연장, 카페, 댄스홀, 상점가 등 다양한 공간이 여기저기에 생겨 여유 있게 흥청거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루돌프 발렌티노⁵⁾나 마를레네 디트리히⁶⁾와 같은 영화배우를 흉내 낸 복장이나 걸음걸이, 머리모양, 화장을 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오갔다. 백화점이나 카페,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근대도시의 새로운 소비 공간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서구식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한 근대 여성들의 주 무대가 되었다.

4) ① 도쿄의 긴자 같은 번화가를 별 불일 없이 터덜터덜(ぶらぶら) 돌아다니는 모습을 도시의 사회현상으로 명사화한 말이다. (成田龍 著/서민교 율김(2003)『근대도시공간의 문화경험』뿌리와 이파리, p.52)

② 유명한 작가들이 좋아하는 긴자의 카페인 “パウリスタ”에서 브라질 커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5) 루돌프 발렌티노(Rudolph Valentino, 1895-1926) : 이탈리아 출생의 미국 영화배우로 렉스 잉그럼 감독의 《묵시록의 4기사》에 출연하며 스타가 되었다. 이후 《춘희》, 《시크》 등의 주역을 맡았으며 라틴계통의 미남배우로 여성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6)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1901-1992) : 독일 출생의 미국 영화배우로 유성영화 초기의 독일영화 《탄식의 천사》의 주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모로코》, 《정염의 미녀》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할리우드 여왕으로 인기를 누렸다.

비록 제한된 소수이지만 교육 받은 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게 되면서 신여성으로 포괄되는 사회층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던 현실이 이러한 소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였다.⁷⁾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경제의 중심지였던 오사카고베에서도 도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도시나 교통기관이 정비되어 노면전차나 아오버스(青バス)⁸⁾나 엔타로버스(円太郎バス) 등의 승합버스가 시내를 다니고, 모던예술문화생활양식이 탄생하였다. 오사카고베는 관동대지진(1923) 이후 도쿄에서 문화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더욱 번성했다. 다이쇼 중기에는 도시에서 서양풍의 생활을 받아들인 문화주택(文化住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화의 발달은 젊은 여성들의 취업의 기회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이쇼기 쇼와기에 여차장, 여사무원, 여성교환수, 여점원 그리고 카페 여급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에서 여성의 직업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거리에는 양장을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성의 직장이 확대된 것은 1차 대전 전후로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쇼와 초기의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여성 노동력에 눈을 돌린 결과였다.

도시의 젊은 미혼 여성들의 가치관은 1900년대 경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⁹⁾

여성 교환수의 경우 1901년에 남성 교환수제가 폐지되자 급격히 증가하여 3천 명을 넘어섰고, 일본은행의 여성 직원도 1910년에는 314명에 달했고, 철도청에도 2,440명의 여성이 근무했다. 다이쇼 이래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대되어갔다. 지진 후 마루노우치(丸の内)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근무한 상사원 4500명 중 여사무원이 700명에 달했고, 주변의 빌딩을 더하면 1000명은 훨씬 넘는 여성들이 마루노우치 일대에서 일했다. 여성들이 소학교 교사나 사무원, 전화교환수 등은 물론 차장, 점원, 타이피스트, 미용사, 아나운서, 모델, 보험판매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도시에서 극히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¹⁰⁾

1920년대 대도시인 도쿄에 나타난 새로운 여성들의 직업의 뒤에는 걸(ガール)을 붙였다. 데파트 안내걸, 엘리베이터걸, 슝걸(판매원), 마네킱걸(패션모델), 가솔린걸(가솔린 스탠드 종업원), 버스걸, 에어걸, 엔타쿠걸¹¹⁾, 마린걸(관광선 안내양) 등이다. 직업과는 별개로 신조어로 키스걸(키스를 꺾는 여성), 스틱걸(스티커처럼 남자와 동반하는 여성) 등의 새로운 성풍속도

7) 김정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pp.219-220

8) 東京乗合自動車

9) 本田和子(1990)『女學生の系譜』青土社

10) 松崎天民(1986)『銀座』新泉社, p.130

11) 엔(円)타쿠 운전수 또는 조수

등장했다.¹²⁾ 이 시대 일본에서 이들 새로운 여성들만큼 미디어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없었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 매스컴의 침투나, 생활의 합리화부터 복장과 화장 등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서구화된 근대 도시문화 수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 함께 서구도시화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여성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은 변화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을 동경하며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복식으로 쉽게 나타났으리라 본다.

3. 여성 복식의 변천

3.1 메이지시대

3.1.1 의복

로쿠메이칸 시대의 서양의복을 그대로 받아들여 착용한 양복 형태, 서양의복과 전통의복을 절충하여 입는 화양절충 형태, 전통복을 개량하여 서양화시킨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메이지 초기부터 서양화가 진행되면서 비교적 빨리 양복을 착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양복 착용이 시작하여 유행하게 된 것은 로쿠메이칸 이후였으며, 양복이 공식적인 복장으로 수용되어 상류계급의 풍속으로 정착되어 갔다. 외관상으로 화려하면서 새로운 양장의 도입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오히려 서양 패션에 대한 최신의 지식 없이 서양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입어, 경박스러운 양장화의 일면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모시야소시(もしや草子)』에는

새로 맞춘 서양복의 치맛자락을 집오리의 엉덩이처럼 실룩실룩 흔들면서 흠이 묻어도 상관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맥의 영양인가...중략...불란서의 모자, 독일의 구두, 이태리의 코르셋, 오스트리아의 크리놀린, 영국의 리본, 스페인의 레이스 등등 서구 각국의 30년간 유행을 뛰든지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취하는 것은 널리 만국의 장점을 취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니 좀처럼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¹³⁾

12) 荒木詳二(2007)「1920년대의「新しい女たち」について」群馬大學社會情報學部研究論集 第14卷, p.246

13)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pp.145-147

라고 풍자하고 있다. 외관상으로 화려하고 새로운 양장의 도입은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서양 패션에 대한 최신의 지식 없이 서양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구색 맞추어 입어, 경박한 양장화란 일면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야회복 차림의 부부¹⁴⁾



<그림 2> 로쿠메이칸의 일요일(댄스 교실)¹⁵⁾

<그림 1>과 <그림 2> 메이지기 로쿠메이칸 복식을 풍자한 프랑스화가 비고(ビゴー, 1860-1927)의 그림이다. 비고는 메이지15년(1882)부터 메이지31년(1898)의 18년간 일본에 체재하여 일본인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자로 알려져 있다.

서양인이 보면 원숭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로쿠메이칸 시대 <그림 1>에는 일본인을 야회복을 입은 원숭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는 서양인 선생님에게 댄스 수업을 받는 서양식 양장 차림의 소녀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당시 체형이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복식을 한 일본인들의 모습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그저 유행만을 따르고 모방하려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메이지기 여성 복식의 서양화는 서양 패션에 대한 최신의 지식 없이 서양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입어, 경박스러운 양장화의 일면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4) <http://blog.zige.jp/barber/kiji/282317.html>

15) <http://blog.goo.ne.jp/yousan02/e/77c1003f66324dc25bae003b88651968>

3.1.2 헤어스타일

서구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사람들 대부분은 화복 착용을 하였지만, 두발형태는 서양화된 형태보다는 화복에 어울리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부인속발회는 부인머리개량운동 등을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헤어스타일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3> 부인 머리 개량¹⁶⁾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보다 빨리 서양화가 진행되었다. 당초, 남성의 단발이 장려되었던 한편 여성의 단발은 신문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메이지 5년 여성이 단발하지 않도록 여자의 단발 금지령을 공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또는 구류와 같은 경범죄로 취급되었다.

메이지 18년 부인속발회(婦人束髮會)가 발족되면서 단발은 확대되었다.

<표 1> 메이지기 풍속측정

메이지 20년 4월(우에노 공원, 450名)			
속발	29%	양장	3%
메이지 21년 1월(東京芝, 京橋, 日本橋, 神田, 本郷五區, 417名)			
속발	14%	양장	1%
메이지 21년 1월(오사카구 및 中之島公園, 89名)			
속발	19%	양장	2%

16) 메이지(明治) 18年 부인속발회(婦人束髮會)가 제안한 改良東髮之圖 (村田孝子編著ポラ文化研究所(2003)『近代の女性美 -ハイカラモダン・化粧・髪型-』)

<표 1>은 메이지기 풍속측정의 결과이다¹⁷⁾. <표 1>에 의하면 메이지 20년 4월 우에노 공원에서 여성 450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결과는 속발이 29%, 양장 3%였다. 21년 1월의 東京芝, 京橋, 日本橋, 神田, 本郷五區에서의 417인의 조사결과 속발 14%, 양장 1%, 같은 해 1월 오사카 구 중요거리 및 中之島公園에서의 89인의 조사에서는 속발 19%, 양장 2%였다. 이를 통해 보면 근대 복식의 서양화는 의복보다 헤어스타일에서 더 빨리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잡지에서 나타난 두발에 관한 기사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속발을 하지는 것으로 서양풍의 헤어스타일인 속발이 편익, 위생, 경제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기사화하고 있었다. 편익면에서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본 머리를 속발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무거워 두통의 원인이 되고 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목제의 높은 베개를 사용하므로 편안하게 수면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위생면에서는 머리형태를 많은 양의 머리기름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통기성이 나쁘고, 두피에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하며, 머리를 한 달에 두 세번 밖에 씻지 않고 한번에 쌓인 노폐물을 뜨거운물로 강하게 씻어야 하기 때문에 두피에 자극을 주어, 탈모의 원인이 되고 긴 머리를 아래로 하고 씻는 데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비용면에서 한번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두발을 서양식 머리인 속발로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3.2 다이쇼시대

다이쇼기에는 여학생들에게도 기모노에 하카마 착용이 보편적이었다. 바지의 모습은 사회생활의 필요가 낳은 지혜라고 생각되는데 감각적으로는 양복 스타일을 흉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다이쇼기 중반부터 쇼와 초기(1926-1930)에 걸쳐 양장을 착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의 교복도 세일러복에 플리츠스커트를 착용하는 등 양장 교복이 확산되었고, 양장모자의 착용도 이루어졌다. 다이쇼기 중반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비롯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첨가된 의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또한 양장 교복의 확산은 일반여성의 화복차림을 양장으로 대체하는 배경이 되었다.

『婦人之友』에 1937년 이마카즈 지로오의 ‘전국19도시 여성복장 조사 보고’가 게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4분의 1은 서양복’인데 이의

17) <표 1>은 칼로트·페데리카明治初期中期 日本における「西洋化」に関する一考察アルザス日歐知的交流事業 日本{研究セミナー「明治」報告書の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8) 井筒雅風 著 李子淵 譯(2004)『日本女性服食史』경춘사, p.209

절반 이상은 여학생의 교복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젊은 여성과 직장에 근무하는 기혼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일반 부녀자들은 상당수가 여전히 화복을 착용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할 당시 일본에서는 긴 치마와 함께 클로쉐와 같은 모자가 유행했고 퍼머넨트 웨이브와 같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다. 서양복을 착용한 외출은 여성의 경우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서양복의 착용은 아동복, 여학생복, 간소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4> 변화가의 남녀¹⁹⁾



<그림 5> 긴자의 여성²⁰⁾

1920년대 대도시에서 출현한 모던걸 현상은 전세계적 현상이었으며, 당시 나타났던 새로운 여성들을 일본은 모던걸, 독일은 새로운 여자(플라우), 미국은 플래퍼, 프랑스는 가르송느라 불렀다. 도시문화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여성들의 출현은 파리, 뉴욕, 상해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1920년대 변화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서양복 차림과 전통복 차림의 여성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서양복 차림의 여성은 당시 모던걸의 상징인 단발과 클로쉐햇, 구두와 무릎길이의 양장을 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복을 한 여성들도 의복은 전통복을 고수하고 있지만, 헤어스타일은 근대 여성의 웨이브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5>의 긴자 거리를 걷는 여성들은 당시 인기 있었던 루돌프 발렌티노나 마블레네 디트리히와 같은 영화배우를 흉내 낸 복장이나 머리모양을 하고 있다.

관동대지진(1923) 이후 도쿄의 신풍속으로 주목받았던 양장, 단발 여성을 의미하는 모던걸은 다이쇼부터 쇼와초기에 걸친 유행어 중 하나이다.

19) <http://www.ginza.jp/history>

20) <http://matome.naver.jp/odai/2136970561024683101>

모던걸은 양장, 단발, 짙은 화장 등 외양적 특징이 더해져 경박한, 품행이 나쁜,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의 표상이었던 반면 당시 대중매체나 광고에서는 세련된 모던걸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림 6> 매체에 나타난 모던걸

<그림 6>은 요미우리 신문의 유행관련 기사로,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은 실제 착용하기는 힘들지만, 왼쪽의 사진은 꼭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패션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쇼시대는 도시문화 수용의 결과물로 나타난 모던걸이 눈에 띄었던 시대로 모던걸의 복식에서는 전통적인 요소는 찾아 볼 수는 없으나, 메이지기에 나타난 맹목적인 모방보다 일본인들의 체형이나 정서에 맞는 복식에 맞추기 위해 직물의 문양이나 스커트 길이를 조절하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3.3 전시 여성복식

1940년대에 이르러 전쟁준비가 본격화되자 여학생들의 교복에도 바지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국민복이 입혀졌다.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전시 태세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직업도 다양화하여 여기에 수반하는 양장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머리에 리본을 꽂는 것과 머플러를 두르는 것도 유행하였다.²¹⁾

21) 井筒雅風 著李子淵 譯(2004), 위의 책, p.160



<그림 7> 여학생 교복(1944)



<그림 8> 여학생 국민복(1941)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목면과 양모가 부족하고 모든 생활물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의복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이전처럼 품질이 우수한 옷감의 생산은 중단되어 좋은 옷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여성들은 가지고 있던 옷을 재활용한 갱생복을 만들어 입었다. 1942년에 의료표에 의한 배급제가 시작되었는데, 1년에 80점 또는 100점의 의료표를 배급해서 점수제에 의해 의료 구입을 제한한 것이다.²²⁾ 1943년 8월 1일에는 긴소매가 달린 화복의 제작이 금지되었다.²³⁾



<그림 9> 1943년 전통복과 노동복

3월은「冗費追放」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서는 여성들의 전통복 차림의 화려한 복장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식 머리형과 긴 소매의 화려한 화복을 입은 여성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9월의 사진은 단수(斷袖)운동을 하자는 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전달하는 사진으로 짧은 소매의 화복이 등장하고 있다. 12월에는 몸빼와 바지가 등장하는데 화려한 복장은 감소하고 몸빼와 같은

22) 코이케미즈에 그 와, 허은주 역『日本服飾史와 生活文化史』어문학사, p.140

23) 井筒雅風 著 李子淵 譯(2004), 위의 책, p.161

간편복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빼의 착용은 전통적인 개념의 일반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신체를 요구함과 동시에 남성과 동등한 활동적인 신체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중의 몸빼 착용을 통해 국가를 위해 노동하는 여성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는 전쟁 이후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역할 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²⁴⁾



<그림 10> 여성들의 노동복

<그림 8>은 건강한 여성들을 상징하는 사진들로 노동복의 형태를 알 수 있다. 1월의 사진은 여공들이 단검술을 하는 모습으로, 세계로 나누어 묶은 머리스타일이 독특하게 보인다. 4월의 사진은 바케스(バケツ)를 사용하여 하는 방공체조로, 복장은 이부식의 몸빼와 상의로 나누어져 있다. 11월은 여성 집배원들의 모습으로 몸빼나 즈봉에 양장의 상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그림 11> 다양한 양복형 노동복

24) 이진민(2004)「전시체제 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연구」『복식』Vol.54 No.2, p.131

<그림 11>은 1940년대 다양한 양복형 노동복으로 일부식(一部式) 부인표준복을 응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시에 나타났던 일본의 여성복식은 다이쇼기와 메이지기에 도시문화의 수용에 따라 서양복식을 새로운 유행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아래 의복에 있어서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근대 초기 맹목적인 서양복식의 도입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일본복식과 서양복식의 형태를 절충한 근대복식이 나타났고, 이는 서양화된 여성 복식이 일본복식으로 정착화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4. 나오며

초기 도시문화 수용에 따른 복식의 서양화의 양상은 근대도시에 관심을 가진 초기 메이지 정부의 문명화의 목적에 따른 외국에 대한 걸치레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로쿠메이칸이라는 서양식 사교장에서 서양예복을 입고 교류했던 당시의 모습은 서양인들의 흉내내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기의 서양화는 미국문화를 기초로 한 도시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댄스홀과 카페와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공간, 문화주택과 같은 신주거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이에 따라서 복식도 새로운 소비, 주거 공간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구미의 유행을 반영하는 무릎길이의 치마, 짧은 단발과 클로쉐 햇과 같은 플레퍼 스타일의 유행이 출현하였으며, 당시 소비주체로 떠올랐던 모던 걸을 상징하는 플레퍼 스타일은 이러한 서구문화 수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초기의 일본 여성 복식은 무조건적인 서양 복식의 유행을 따른 면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유행도 점차 시대 상황이나 용도에 맞게 변모하고 정착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도시화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직업 활동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여성들의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유행만을 따르던 복식에서 사회활동에 적합한 개량복의 형태로 여성복식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전통복의 요소를 응용한 서양복식 형태는 메이지 초기 무조건적인 서양화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서양복의 일본화라는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신하경(2009)『모던걸- 일본제국과 여성의 국민화』논형
이진민(2004)「전시체제 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연구」『복식』Vol.54 No.2
유모토 고이치 저·정선태 역(2004)『일본 근대의 풍경』그린
코이케미츠에 저·허은주 역(2005)『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어문학사
함동주(2010)「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경험과 이상적인 여성상」『이화사학연구』제41집
후카이 아키코 저(2011)『자포니즘 인 패션』제이앤씨
井筒雅風 著 李子淵 譯(2004)『日本女性服食史』경춘사
成田龍 著 서민교 옮김(2003)『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뿌리와 이파리
荒木詳二(2007)「1920年代の「新しい女たち」について」群馬大學社會情報學部研究論集 第14卷
本田和子(1990)『女學生の系譜』靑土社 Hond, K.(1990)
松崎天民(1986)『銀座』新泉社
<http://blog.zige.jp/barber/kiji/282317.html>
<http://blog.goo.ne.jp/yousan02/e/77c1003f66324dc25bae003b88651968>
<http://matome.naver.jp/odai/2136970561024683101>
<http://www.ginza.jp/history>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일본의 서구 도시문화 수용에 따른 근대 여성 복식의 변천 고찰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기 이후 근대도시의 문화 수용으로 나타난 서양화된 여성 복식이 일본복식으로 정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초기 도시문화 수용에 따른 복식의 서양화의 양상은 근대도시에 관심을 가진 초기 메이지 정부의 문명화의 목적에 따른 외국에 대한 걸치레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로쿠메이칸이라는 서양식 사교장에서 서양예복을 입고 교류했던 당시의 모습은 서양인들의 흉내내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기의 서양화는 미국문화를 기초로 한 도시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댄스홀과 카페와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공간, 문화주택과 같은 신주거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이에 따라서 복식도 새로운 소비, 주거 공간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구미의 유행을 반영하는 무릎길이의 치마, 짧은 단발과 클로셰 햇과 같은 플래퍼 스타일의 유행이 출현하였으며, 당시 소비주체로 떠올랐던 모던걸을 상징하는 플래퍼 스타일은 이러한 서구문화 수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지 초기의 일본 여성 복식은 무조건적인 서양 복식의 유행을 따른 면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유행도 점차 시대 상황이나 용도에 맞게 변모하고 정착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The Shift in the Fashion of Japanese Modern Wome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Urban Culture in Japan

The early phase of the way in which the overall fashion in Japanese dress became “westernized” through the Western-style urban culture actively introduced in Japan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 the early Meiji-period governments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modern city and their subsequent inclination of following (or mimicking) the ostensible formality of the Western culture as part of their grand objective to “civilize” or “westernize” the then Japanese society. For instance, high-ranking Japanese officials and their partners socializing with one another at such Western-style (members-only) social clubs as the Rokumeikan (鹿鳴館), wearing Western-style suits or dresses, could be seen as merely mimicking the then Westerners’ attire. The emergence of the Westernization in Japan during the Daisho period after the First World War has a tendency of being influenced by the American culture-based urbanization. And this “latest” urban phenomenon enabled the creation of such new forms of spaces for cultural consumption and residence as dance halls, cafes and cultural housings in Japan. In parallel with this, the fashion in Japanese dress also became gradually transformed to adapt itself to these new forms of cultural consumption and residence. Accordingly, new fashion trends reflecting the then American fashion style started emerging that ranged from knee-length skirt to the flapper style like short-cut hairstyle with cloche hat.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emergence of the flapper style, the symbol of modern girls who were growing as main (cultural) consumers of that period, resulted from Japan’s long-term efforts to accommodate and then introduce the Western culture in its society. Although the women’s fashion in Japan in the early Meiji period tended to merely mimic the Western fashion style, such a trend-seeking tendency started being gradually transformed and then “settled” with times, according to the concomitant shift in its need responsive to the then sociocultural circumstances.